

ESG FOCUS

2015-04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배당확대 현황

오덕교 연구위원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배당확대 현황

오덕교 연구위원 deokkyo@cgs.or.kr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jkjeong@cgs.or.kr

요약

-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2014 회계연도의 배당성향은 29.6%로 지난해에 비해 32.7%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였으나 현금 배당액은 증가하여 배당성향이 크게 상승함
- ◆ 분석기업(699사) 중 489사가 2014 회계연도에 배당을 실시하였고, 배당 실시 기업 중 282사는 전년 대비 배당액이 증가하였고, 129사는 전년도 배당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 보유현금 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나, 배당 실시 기업 중 103사는 현금배당액이 보유현금보다 크며 나아가 배당성향이 100% 이상인 기업 38사 중 10사가 보유현금보다 많은 현금배당을 실시함
- ◆ 배당 확대 노력과 함께 분기배당 및 배당예고를 통해 투자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이익을 환원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배당확대 현황

1. 배경

- 정부는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하나로서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도입을 발표함
 - 201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5년 1월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함
- 지난 해 말부터 상장기업들은 배당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임
 - 2014년 현금배당을 공시(2014.12.1~2015.2.5)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수는 총 145개사로 작년대비 59개사가 증가하였으며, 배당금 총액은 9조 8,774억원으로 3조 6,785억원 증가함¹⁾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작년대비 배당을 증가한 기업은 51개사로, 대형 31개사의 배당총액이 7조 2,492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 배당금 총액의 77.5%을 차지함
- 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2014 회계연도 현금배당 확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2. 조사 개요

- 조사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699사로,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 특수목적회사, 투자회사 등은 제외함
- 조사 데이터는 최근 3년 동안의 당기 순이익(개별),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배당금 총액, 유통주식 수 등으로 상장회사협회의 TS2000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조사함

1) "2014년도 12월 결산법인의 현금배당 공시현황('15.2.5일 현재)",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2015.2.6.

3. 배당현황 분석

■ (주당 배당금) 2014 회계연도 동안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평균 주당 배당금은 547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5% 증가함

- 회계연도별 평균 주당 배당금은 509원(2012년), 495원(2013년), 547원(2014년)임

■ (배당액) 2014 회계연도의 현금배당 총액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함

- 2013 회계연도 현금배당총액은 12조 3,691억원의 규모였으나 2014 회계연도에는 15조 4,470억원으로 3조779억원이 증가함
 - 12조 6,885억원(2012년) → 12조 3,691억원(2013년) → 15조 4,470억원(2014년)
- 그러나 배당 실시 기업 수는 별다른 변화가 없음
 - 489사(2012년) → 477사(2013년) → 489사(2014년)
- 2012~14년 동안 최대 배당액을 기록한 기업은 삼성전자임
 - 2,999,972백만원(2014년), 2,156,969백만원(2013년), 1,206,562백만원(2012년)

■ (당기순이익)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

-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기업(534사) 중 453사(약 85%)가 배당을 실시하였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65사 중 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36사(22%)*임
- * 두산중공업(86,443백만원), LG전자(72,885백만원), 삼성SDI(70,814백만원) 등

〈순이익/순손실 발생과 배당 실시여부〉

| 배당 실시여부 | 순이익 발생 | 순손실 발생 | 계* |
|---------|--------------|--------------|-------------|
| 실시 | 453사 | 36사 | 489사 (70%) |
| 미실시 | 81사 | 129사 | 210사 (30%) |
| 계* | 534사 (76.4%) | 165사 (23.7%) | 699사 (100%) |

* 괄호 안의 %는 전체 분석 기업(699사)에 대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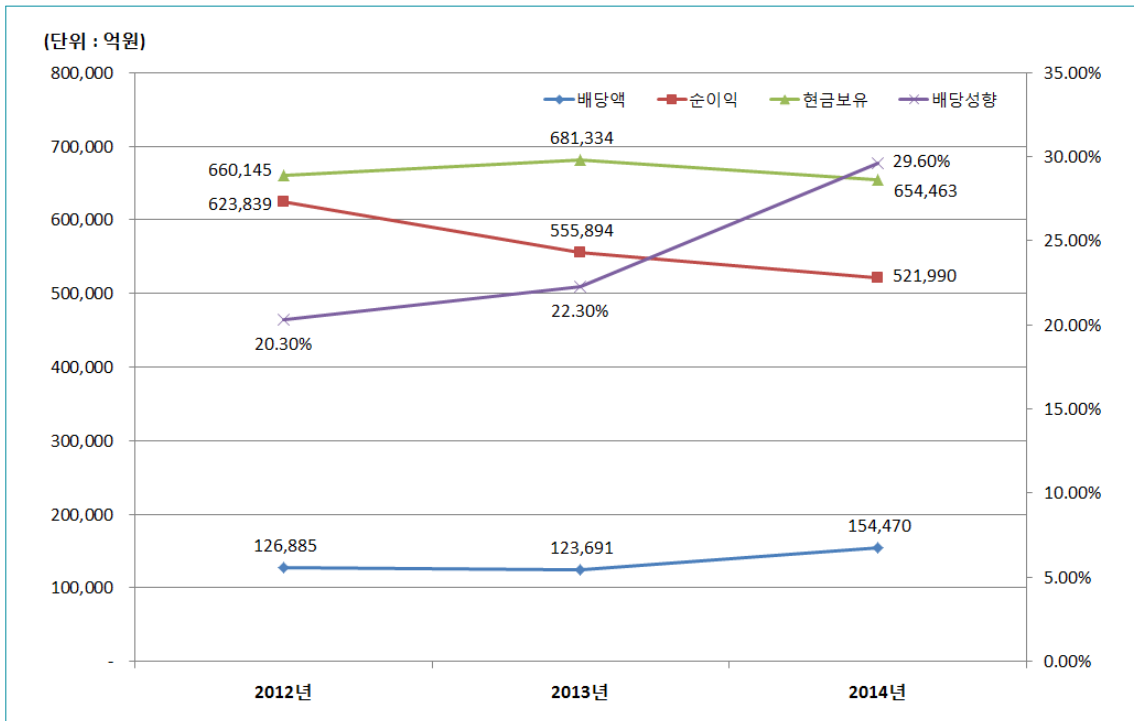
■ (보유현금) 2014 회계연도 동안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보유현금(현금흐름표 상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전년 대비 4% 하락함

- 보유현금이 가장 많은 기업은 우리은행으로 약 4.7조원 규모를 보임
 - 보유현금이 가장 적은 기업은 AK홀딩스(96만원)로, 2012년 85.5억원에서 2013년 24.2억원으로 계속 감소함
- 일반적으로 보유현금 내에서 현금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나, 배당 실시 기업(489사) 중 103사(배당 실시 기업의 21%)는 현금배당액이 보유현금보다 큼
 - 2015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의결된 배당액은 2015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에 반영됨

■ (배당성향) 201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함(2014년 전년대비 32.7% 증가)

-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고 배당금 총액은 증가함에 따라 2014 회계연도의 배당성향은 크게 증가함
 - 20.3%(2012년)→22.3%(2013년)→29.6%(2014년)

〈현금배당액, 순이익, 현금보유, 배당성향 추이(2012~14년)〉



■ (배당성향 100% 초과 기업) 2014 회계연도에 현금배당액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성향이 100%를 초과하는 기업은 38사이며, 배당성향이 가장 높은 기업은 인터지스로 2272%를 보임

- 인터지스는 2013년에는 339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8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에는 91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20억 74백만원을 배당함
- 배당성향이 100%를 초과하는 기업 중 10사는 보유현금보다 현금배당액이 더 큼 (보유현금 대비 현금 배당액 비율이 100% 초과)
 - 보유현금 내에서 현금배당을 실시한 28사의 보유현금 대비 현금배당액의 평균 비율은 28.6% 수준임
 - SK네트웍스와 S&T 중공업은 각각 2.2%, 2.3%로 가장 낮음
 - 진양폴리우레탄은 현금배당총액(12억 5천만원)이 보유현금(4백만원)의 300배를 초과함

〈배당성향 100% 초과 기업 현황〉

* 배당성향 순 정렬

** 음영이 들어간 기업은 현금배당액이 보유현금을 초과하는 기업임

(단위 : 백만원)

| 기업코드 | 기업명 | 보유현금 (A) | 당기순이익 (개별) | 현금 배당액 (B) | 배당성향 | 보유현금 대비 현금배당액 (B/A) |
|--------|-----------|----------|------------|------------|---------|---------------------|
| 129260 | 인터지스 | 3,168 | 91 | 2,074 | 2272.0% | 65.5% |
| 008250 | 이건산업 | 3,547 | 99 | 1,402 | 1409.5% | 39.5% |
| 005190 | 동성화학 | 3,872 | 98 | 1,218 | 1248.7% | 31.5% |
| 035000 | GII R | 298 | 327 | 3,242 | 990.6% | 1087.9% |
| 130660 | 한전산업 | 16,396 | 574 | 4,368 | 761.5% | 26.6% |
| 001800 | 오리온 | 12,300 | 5,209 | 31,594 | 606.5% | 256.9% |
| 016450 | 한세에스24홀딩스 | 238 | 671 | 4,000 | 595.8% | 1680.7% |
| 006040 | 동원산업 | 28,319 | 1,289 | 6,726 | 521.9% | 23.8% |
| 000500 | 가온전선 | 20,704 | 520 | 2,356 | 452.6% | 11.4% |
| 003540 | 대신증권 | 63,360 | 4,550 | 19,432 | 427.1% | 30.7% |
| 003570 | S&T중공업 | 134,067 | 776 | 3,028 | 390.4% | 2.3% |
| 001790 | 대한제당 | 50,476 | 1,369 | 4,841 | 353.7% | 9.6% |
| 005360 | 모나미 | 552 | 199 | 695 | 348.6% | 125.9% |
| 002820 | 선창산업 | 16,153 | 573 | 1,772 | 309.5% | 11.0% |
| 003070 | 코오롱글로벌 | 23,822 | 4,956 | 15,239 | 307.5% | 64.0% |
| 002880 | 대우에이텍 | 20,937 | 1,445 | 4,330 | 299.6% | 20.7% |
| 024090 | 디씨엠 | 10,074 | 667 | 1,982 | 297.3% | 19.7% |
| 010100 | 한국프랜지공업 | 520 | 578 | 1,523 | 263.3% | 292.9% |
| 006740 | 영풍제지 | 9,289 | 1,534 | 3,692 | 240.6% | 39.7% |

| 기업코드 | 기업명 | 보유현금 (A) | 당기순이익 (개별) | 현금 배당액 (B) | 배당성향 | 보유현금 대비 현금배당액 (B/A) |
|--------|---------|-----------|------------|------------|--------|---------------------|
| 010640 | 진양폴리우레탄 | 4 | 551 | 1,250 | 227.1% | 31250.0% |
| 000080 | 하이트진로 | 16,953 | 31,256 | 69,839 | 223.4% | 412.0% |
| 001740 | SK네트웍스 | 1,153,019 | 11,667 | 24,833 | 212.9% | 2.2% |
| 015890 | 태경산업 | 10,129 | 4,594 | 9,367 | 203.9% | 92.5% |
| 086790 | 하나금융지주 | 263,478 | 94,308 | 173,936 | 184.4% | 66.0% |
| 009140 | 경인전자 | 6,414 | 292 | 480 | 164.4% | 7.5% |
| 001060 | JW중외제약 | 4,674 | 1,662 | 2,711 | 163.1% | 58.0% |
| 003220 | 대원제약 | 21,008 | 15,895 | 24,311 | 153.0% | 115.7% |
| 008730 | 울촌화학 | 28,985 | 9,052 | 12,400 | 137.0% | 42.8% |
| 015360 | 에스코 | 178,899 | 4,961 | 6,313 | 127.2% | 3.5% |
| 002390 | 한독 | 6,441 | 1,473 | 1,867 | 126.7% | 29.0% |
| 003010 | 헤인 | 1,078 | 449 | 563 | 125.4% | 52.2% |
| 105840 | 우진 | 913 | 2,461 | 2,951 | 119.9% | 323.2% |
| 003450 | 현대증권 | 424,986 | 17,613 | 20,054 | 113.9% | 4.7% |
| 016710 | 대성홀딩스 | 91,612 | 3,534 | 4,022 | 113.8% | 4.4% |
| 002150 | 도화엔지니어링 | 23,234 | 3,053 | 3,307 | 108.3% | 14.2% |
| 002450 | 삼익악기 | 34,001 | 3,712 | 3,943 | 106.2% | 11.6% |
| 071050 | 한국금융지주 | 267,748 | 39,680 | 41,226 | 103.9% | 15.4% |
| 006570 | 대림통상 | 1,180 | 2,204 | 2,284 | 103.6% | 193.6% |

- 2014 회계연도의 배당성향이 100%를 초과하는 기업 중 10사는 최근 3개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 가중 평균 배당성향²⁾이 100%를 초과함
 - GII R, 오리온, 한세에스24홀딩스, 진양폴리우레탄, 대원제약은 현금배당액이 보유 현금보다 큼

〈3년 당기순이익 가중 평균 배당성향 100% 초과 기업 현황〉

| 기업코드 | 기업명 | 3년 평균 배당성향 | 기업코드 | 기업명 | 3년 평균 배당성향 |
|--------|------|------------|--------|-----------|------------|
| 001800 | 오리온 | 287.4% | 010640 | 진양폴리우레탄 | 137.2% |
| 002820 | 선창산업 | 204.7% | 016450 | 한세에스24홀딩스 | 135.9% |
| 035000 | GIIR | 185.0% | 003220 | 대원제약 | 113.3% |
| 008250 | 이건산업 | 180.3% | 015890 | 태경산업 | 111.4% |
| 003540 | 대신증권 | 163.5% | 130660 | 한전산업 | 108.4% |

2) 3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배당성향 = ∑ 3년 현금배당액 / ∑ 3년 당기순이익

■ (배당 실시 기업) 배당 실시 기업 중 92.6% 인 453사는 순이익이 발생하였음

〈배당과 순이익의 비교〉

(단위 : 개사)

| 배당 실시여부 | 배당액의 전년대비 증감 | 순이익 / 순손실 | | 순이익 | | 보유현금 | | 계* |
|------------|-----------------|----------------|----------------|--------------|--------------|----------------|----------------|----------------|
| | | 순이익 | 순손실 | 증가 | 감소 | 증가 | 감소 | |
| 실시 | 증가 | <u>268</u> | 14 | <u>188</u> | 94 | 133 | 149 | 282 (40.3%) |
| | 유지 | 120 | 9 | 58 | 71 | 59 | 70 | 129 (18.5%) |
| | 감소 | 65 | 13 | 19 | 59 | 34 | 44 | 78 (11.2%) |
| | 소계 (A) | <u>453</u> | 36 | <u>265</u> | 224 | 226 | <u>263</u> | 489 (70%) |
| 미실시 | 무배당→무배당 | 77 | 107 | 96 | 88 | 83 | 101 | 184 (26.3%) |
| | 유배당→무배당 | 4 | 22 | 3 | 23 | 9 | 17 | 26 (3.7%) |
| | 소계 (B) | 81 | <u>129</u> | 99 | <u>111</u> | 92 | <u>118</u> | 210 (30%) |
| 계 (A+B)* | | 534 (76.4%) | 165 (23.7%) | 364 (52%) | 335 (48%) | 318 (45.5%) | 381 (54.5%) | 699 (100%) |

* 괄호 안의 %는 전체 분석 기업(699사)에 대한 비율임

- (배당액 증가) 배당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282사 중 순이익이 발생한 기업은 268사, 순이익이 증가한 기업은 188사임
 - 149사는 보유현금이 감소하였으나 배당액이 증가함
- (배당액 유지) 배당액이 전년과 동일한 기업(129사) 중 순이익이 발생한 기업은 120사, 순이익이 감소하였으나 배당액을 유지한 기업은 71사임
 - 70사는 보유현금이 감소하였으나 배당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함
- (배당액 감소) 배당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78사 중 65사는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배당액이 감소함
 - 44사는 보유현금과 배당액 모두 전년대비 감소함
- 전년도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2014 회계연도에 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38사임
 - 38사 중 5사(신송홀딩스, 미원화학, 미원SC, 두산건설, 부산산업)는 전년 대비 순이익 감소하였으나 무배당에서 배당으로 전환함

- ▶ 두산건설과 신송홀딩스는 3년 연속 적자 기업으로 2012, 2013년에는 무배당이었으나 2014 회계연도에는 배당을 실시함
- ▶ 이들 기업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함 (56.93%(신송홀딩스), 62.08%(미원화학), 미원SC(59.34%), 두산건설(61.94%), 부산산업(51.75%))
- 국보, 신풍제지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3년 연속 배당을 실시함
 - 보통주 현금배당총액
 - ▶ 국보 : 50백만원 (3년 연속 균일)
 - ▶ 신풍제지 : 1,385백만원(2014년), 1,523백만원(2013년), 3,046백만원(2012년)
- 삼성SDI, 하이스틸, 한국특수형강, 삼화전기, LS네트웍스는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3년 연속 배당을 실시함
 - 삼성SDI, 하이스틸, LS네트웍스의 보유현금 대비 현금배당액 비율이 각각 49%, 22%, 2.3% 수준임

〈3년 연속 배당 실시 기업 중 2년 연속 적자인 기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업 코드 | 기업명 | 보유현금 | | | 당기순이익 | | | 현금배당액 | | |
|--------|--------|---------|---------|---------|----------|---------|-----------|--------|--------|--------|
| |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006400 | 삼성SDI | 142,839 | 282,621 | 347,205 | -167,000 | -63,363 | 2,547,190 | 70,314 | 67,410 | 67,383 |
| 071090 | 하이스틸 | 1,358 | 2,815 | 6,376 | -479 | -2,503 | 2,081 | 299 | 199 | 699 |
| 007280 | 한국특수형강 | 787 | 40 | 537 | -20,182 | -11,407 | 3,465 | 250 | 300 | 750 |
| 009470 | 삼화전기 | 269 | 674 | 11 | -743 | -1,519 | 127 | 263 | 263 | 331 |
| 000680 | LS네트웍스 | 18,955 | 10,412 | 7,319 | -18,218 | -12,625 | 15,687 | 437 | 307 | 826 |

- (배당 미실시 기업) 분석기업(699사)의 30%인 210사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 중 129사는 순손실을 기록하였음
 -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 81사에 이룸
 - 전년도에 이어 2014 회계연도에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 184사임
 - 59사는 전년 대비 순이익이 증가하였고, 37사는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전년 대비 순손실 규모가 감소함

- 전년도에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2014 회계연도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 26사임
 - 당기순이익이 증가(또는 당기순손실이 감소)하였으나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 3사(교보증권, 대동전자, 금호전기)임
 - 금호전기는 3년 연속 손손실이 발생하였음
 - 교보증권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증가하였으나 영업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보유현금이 감소하였음

4. 결 론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2014 회계연도 배당성향은 29.6%로 지난해 22.3%에 비해 32.7% 증가함

-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였으나 현금 배당액은 증가하여 배당성향이 크게 상승함
- 배당성향이 100%를 초과하는 기업도 38사 존재함
 - 38사 중 10사는 현금배당액 규모가 보유현금보다 큼
 - 기업은 보유현금의 규모 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며, 과도한 배당 확대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기업가치를 저해함
 - 10사는 최근 3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 가중 평균 배당성향이 100%를 초과함
- 또한 평균 주당 배당금은 547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5% 증가함

■ 699사 중 282사는 전년 대비 배당액이 증가, 313사는 유지(무배당 포함), 104사는 감소함

- 전년도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2014 회계연도에 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38사임
- 전년도에 이어 2014 회계연도에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 184사이며, 순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 59사에 이룸
- 전년도에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2014 회계연도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 26사임

- 2014 회계연도 동안 유가증권시장의 배당성향(29.6%)은 미국 S&P500의 배당성향(32.2%)³⁾과 비슷한 수준임
 - 다만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성향은 선진국 평균(43.8%)에 많이 못미쳐⁴⁾ 향후에도 지속적인 배당확대의 노력 필요

- 배당의 확대와 함께, 기업의 배당정책 또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은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자에게 안내하는 게 바람직함
 - 분기배당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이익 환원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외국처럼 매 회계연도 초에 배당을 예고하여 주주 및 투자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2015년 1월 기준, Factset Dividend Quarterly, 2015.3.17.

4) 이영원·김정호(2015), “2014 배당, 의미있는 배당정책의 변화”, Strategy Comment(2015.2.3.), HMC 투자증권, p.3.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33) 신관 9층 (150-977)
TEL : 02-3775-3339 FAX : 3775-2630 www.cgs.or.kr